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3호, 2013년 6월
J Korean Acad Nurs Vol.43 No.3, 431-441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431

북한이탈 남성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경험

김경미[1] · 김미영[2]

[1]김천대학교 간호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Adaptation Experiences in South Korea of Men defecting from North Korea

Kim, Kyoung Mi[1] · Kim, Miyoung[2]

[1]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2]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explore meanings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in South Korea of men defectors from North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1 to May, 2012,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en men defector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rocess of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Results:** Eight essential themes were extracted; 'buoyant expectation for a new life', 'feeling guilty about family left behind in North Korea', 'inability to become acclimatized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ability to socialize with South Koreans due to different lifestyles', 'finding strength through trustworthy acquaintances', 'continuing reconciliation with oneself while trying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n culture', 'self-realization of one's original self', and 'continuing to feel out the possibility of a future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n men who defect to South Korea shape their identity through three phases: forming self-image during escape from North Korea, trying to become accustomed to South Korean society, and finding their own identity by self-realization of their original self. Eventually, the whole process enables them to recover their identity,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to discover possibilities for a better future.

Key words: Adaptation,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Refuge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체제 경쟁적 인식이 사라지면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2월 현재 23,879명에 이른다(Ministry of Unification [MU], 2013).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요인은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에 의한 체제 불만과 처벌우려, 생활고 등이었다면 현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유에 대한 동경, 가족유인입국, 자녀교육 등의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의 입국 형태와 다르게 난민보다 이주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Kim, Lee, & Kim, 2011). 특히 과거 입국을 주도했던 여성들은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단위 입국과 기존에 입국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을 데려오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국하는 청소년과 가족의 가장인 남성 주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MU).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주

주요어: 적응, 경험, 질적연구, 이주민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경미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iyo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6694 FAX: +82-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

투고일: 2013년 2월 22일 심사의뢰일: 2013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20일

© 2013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한다. 그 중 가장 힘든 점은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 직장문제, 생활비 마련 등과 같은 생존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이다(Ha, 2009). 남한 사회의 사회 경제체계의 이질성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자립은 쉽지 않다.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환경, 언어생활과 문화생활에서 일차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Chung & Cho, 2008). 특히, 북한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제를 더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사회주의 통제와 생활에 익숙한 남성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짧은 남한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로 의식과 사고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성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3).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남한 사회 내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Park & Seong, 2008).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남한사람들의 이중적이며 차별적인 태도는 이들 상호간의 미묘한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다(Lee, Choi, & Choi, 2010).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무기력한 존재로, 또는 정부의 지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남한 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타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Jeong, 2011; Kim & Hur, 2010; Yoo, 2009).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Bae, Sung, Kim, Yi, & Lee, 2005),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Kim C. K., 2007), 언어생활 문제(Yoo, 2009) 등 남한 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외상의 고통 경험을 심리적 성장에너지로 전환시킨 연구(Kim H. K., 2007)와 이들의 삶의 체험을 사회적 통합을 향한 생존에 대한 강인성으로 제시한(Lee & Kim, 2007) 질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남성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은 여성과 청소년에 국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차지하는 남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이며 보호받아야할 소수자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특히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들이 겪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이고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험의 '사실들'은 언제나 스스로 드러나는 대로 기술될 수 있으며, 해석되지 않는 현상이란 없다고 주장한 van Manen (1990)의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간호학적 돌봄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고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한 남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의미와 그 본질을 탐구하고자 시도하였다.

2. 현상에 대한 지향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은 본 연구자가 '새터민 정신건강 센터'에서 봉사자로 상담일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면서부터이다. 직접 만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만 있었을 뿐 돌봄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힘들어 하였고 갈 수만 있다면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였다. 더 나아가 남한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이질감을 소외에 대한 분노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과연 이들은 남한에서의 삶이 행복할까?'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나는 이들이 경험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지향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경험하는 의미와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현상학적 연구질문을 갖게 되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그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자 심층면담을 통해 지향적 체험을 기술하고 '삶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인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남성이탈주민으로, G시에 위치한 '새터민 정신건강센터'와 '가톨릭 새터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정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며, 하나원에서 G시로 거주지를 배정받은 이들이다. 참여자의 선정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며, 어떤 경험을 하는 지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소개받았으며, 10명이 선정되었다. 연령은 20대 2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이다. 참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431

여자들의 입국동기를 보면 일가족이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한 경우, 눈을 적출해야 되는 위기상황에서 살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무작정 탈북한 경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해 버린 부인과 자식들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여 입국한 경우, 먼저 탈북한 누나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경우, 중국 국경지대에서 신분을 속이고 생활하다가 무국적자의 불안감으로 남한을 선택한 경우 등이었다. 직업으로는 러시아 벌목공, 교사, 어부, 노동 등이었다. 현재 남한에서의 직업은 대형마트 매니저, 야간대학생, 용접원, 식당 종업원, 생산직 근무, 일용직 근무에 종사하였으며, 무직은 2명이었다. 미혼은 2명이었고, 기혼은 6명으로 북한에 아내가 남아 있는 경우가 2명이었다, 특히, 가족의 형태별로 파악해 보면 이탈주민과 다시 가족을 형성한 경우가 2명, 가족 모두가 기획 입국한 경우가 3명, 한국에서 결혼에서 경우가 1명이었다.

3. 자료 수집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이며, 추가 면담은 2012년 5월까지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자와 면대면 개별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녹음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첫 면담 시에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분의 노출을 극히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적이고 주관적인 주제는 배제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 횟수는 2회였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로 북한이탈주민 정신보건센터의 면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 참여자의 행동, 표정,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면담 후에는 현장기록 노트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정과 특징, 면담의 주요내용과 연구자가 면담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이야기 도중 몹시 격앙되고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하거나 눈물을 보일 때는 조용히 경청을 하거나 침묵으로 공감을 보였다. 면담질문으로 "남한사회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와 같은 개방적인고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영어로 된 외래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는데 남한 용어를 모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는 해석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과정 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고자 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011-12-7)에서 연구 진행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참여자 중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 있는 이탈주민들은 익명성에 예민하였으므로 연구자는 모든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적인 정보의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

4.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과정

수집한 자료는 녹음, 필사, 자료 분류, 목록작성 과정을 거쳐 분석 텍스트로 작성하였다. 필사 작업은 녹음된 mp3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 발음, 문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한숨이나 억양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또한 현장노트에 참여자의 동작, 옷매무새, 표정, 어조, 눈물 등을 기록하였다가 녹음 내용 필사본에 함께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를 대분류로, 면담 날짜를 소분류로 필사본을 정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과정에서 세분법과 선택론적 방법, 전체론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세분법에 따라 문장 하나, 하나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단어, 구, 절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택론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각 참여자의 입국 이후의 느낌,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즐거움, 의지가 되는 사람과 가족들, 참여자들의 정체성,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미래의 희망 등을 표현한 현상과 관련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 해당 진술의 의미와 경험의 과정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체론적인 분석 방법으로 개별 경험들의 의미와 구조 및 과정들을 통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며 체험한 의미 구조의 본질을 진술하였다. 또한 추출된 의미와 문학 및 예술작품에서의 기술 간의 관련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경험을 기술할 때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경험하는 현상은 24개의 주제와 8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되었다.

5. 자료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서 Lincoln과 Guba (1985)의 평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 장소와 시간을 배려하였고, 참여자에게 필사 기록을 보여주고 면담한 내용의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2명의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적용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공감과 이해를 받았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van Manen (1990) 연구 방법의 기반을 이루는 실존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자 연구 방법의 절차와 기법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였다. 또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과 선입견, 기존의 지식이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와 현상에 대한 선(先) 이해, 가정, 편견 등을 연구 일지에 기록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글쓰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

연구 결과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본 연구는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분석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24개의 주제와 8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1)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풂

참여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경선을 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국에 입국하였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힘들게 살아온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잘사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감격과 마침내 한국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한 감격으로 벅참'을 느끼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중략) 제일 좋은 것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더라구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맘만 먹으면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게 처음에 올 때도 그렇고 와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참여자10)

> 하나원 졸업식 하는 날, 담당형사가 왔더라고 형사가 와서 주민등록증을 줍디다. 그때 눈물이 나, 야... 요걸 받자고 그 먼 길을 왔구나. 내가 올적에 동료가 둘이나 죽었어. 그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증 받으니까 딱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고비 넘기면서 왔는데 '내가 잘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 1)

2)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죄책감이 듦

참여자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에 가슴 아프고' 자신으

Table 1. The Essential Theme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mes	Essential themes
Expecting to live according to one's own will Being full of hopefulness toward a new life	Buoyant expectation for a new life
Agonizing over family left behind in North Korea Blaming oneself for not fulfilling the role of the head of one's household Desiring to provide help for the family living in North Korea	Feeling of guilty about family left behind in North Korea
Feeling a sense of difference and disregard due to different everyday words Feeling a sense of alienation due to unfamiliar foreign language	Inability to become acclimatized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Suffering from physical toll due to drinking culture Feeling hypersensitivity i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 due to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Being overwhelmed with the competitiveness in the capitalistic society Regretting moving to South Korea with discrimination and disdain	Inability to socialize with South Koreans due to different lifestyles
Being relieved by interacting with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Learning the way of living in South Korea with help provided by people with no personal motives Being buoyed up by trust from family members in South Korea	Finding strength through trustworthy acquaintances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in determination of one's life path Making efforts to adjust to South Koreans Exploring strategies to adapt to the society	Continuing reconciliation with oneself who is trying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n culture
Clinging to "my way" Desiring to find true self-image not as a South Korean Trying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through a "tenacious, daring spirit"	Self-realization of one's original self
Hoping for successful lives of one's children in South Korean society Expecting to reunite with the family left behind in North Korea Being pleasant with planning for a better future following work and its reward Wanting to assist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and live together well	Continuing to feel out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in South Korea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431

로 인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힘들어 하였다. '가장으로서 제구실을 못함을 자책함'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자신이 받은 정착금과 남한 생활에서 번 돈으로 '남아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가장으로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위로가 되었다.

>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그 데려오지 못한 거... 막내아들이라도 내년엔 데려오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중략> 그것이 저는 정말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내려올 때 저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국경지대까지만 가고 나는 돌아온다. 그 죄책감 때문에...(참여자 5)

> 내가 돈 보내면서 그 돈은 저축하지 말고 먹는데 써라. 너네 아버지 엄마, 너네 형제들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굶어 죽지 말고 살으라고, 내가 또 보낼테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너무 아낀단 말이에요. 연락이 다 되니까 물론 보낸 돈이 다 처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참여자 4)

3)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응이 안 됨

참여자는 같은 민족이기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당연하였지만 남한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상용어의 차이로 이질감과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으며', '낯선 외래어를 이해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마치 자신이 외계인이 된 듯 낯설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는 남한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여 잘 살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북한에서는 1-2살 나이 차이면 친구처럼 야~, 자~ 한다고(동료에게) 말했더니 앞에서는 그냥 가만있더니 그 다음부터 일하는걸 보면 음으로 양으로 나를 쏘는 거예요. 그런 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아~ 이런 저런 점이 다르구나.' (참여자 8)

> 제일 처음에 딱 부딪쳐 봤을 때 필수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영어'에요. 여기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100마디를 한다면 50마디는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섞이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외계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리 알아듣지 못하믄 어찌 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참여자 9)

4) 생활방식이 달라 남한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참여자는 남한에서의 음식이 취향에 맞지 않아도 못사는 곳에서 와서 못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것 같아 속내를 비추지 않다 보니 '식습관의 차이가 대인관계를 예민'하게 하였다. 또한 놀이 문화가 달라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특히 '음주 문화가 달라 몸이 힘들어도' 함께 어울려야 했고 그러면서도 회비까지 내야 하는 규약이 합당하지 않게 느껴졌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참여자는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남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쟁에 끼어들기가 벅차고' 피곤하기만 하였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구조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차별과 멸시를 느끼며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 여기서 음식을 보면 고등어에 김치 넣고 끓이잖아요. 그런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좋아해요. 우리는 고등어면 고등어를 구어서 먹든지 그렇게 먹지 고등어에 김치를 안 넣어서 먹어요. 잡탕이라고 안 먹어요. 그니까 어디 회사 생활하다 점심 먹으면 그런 게 나오면 다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입에는 안 맞고, 남은 다 먹는데 내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북한에서 못 먹고 못사는 데서 왔는데 이걸 가리나 오해할거 같고... (참여자 6)

> 회사 생활 처음에 하면서 혼났어요. 술 마시면 무조건 2, 3차를 가는데, 새벽 3-4시까지 술도 못 마시는데 안 가겠다고 못하겠고 내 생각엔 안 가면 왕따 시키는 것도 같고,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나이트도 가보고 했는데 자꾸 다녀봤자 몸만 힘들고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아침에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불량 나게 되면 안 되는데... 술 냄새 풍기면 사장이 안 좋아하니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8)

> 북한이탈주민 친구들끼리 이따금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거기 있을 때가 살기가 편했다. 일단은 여기서 살아가려면 사회와 경쟁을 하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해야 되고, 삶에 대한 경쟁에 끼어들려면 벅차고 하니까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된데다가 밥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노가다나 육체적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공부 쪽으로 하려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고. (참여자 2)

5) 의지가 되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음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소속감의 상실로 사람들과의 관계형

성이 쉽지 않았지만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친구들과의 교류는 숨통이 트이게 하여'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일부 남한 사람들 특히 '사심 없이 도와주는 남한 사람들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뢰가 힘이 되었고', 가족의 지지는 남한에서 살아 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XX에 와서 새터민들 모임도 많이 하고 모이면 우리보다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 가정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 말을 들으면 도움이 되고, 숨통이 트이고. (참여자 7)

와이프는 같은 새터민인데, 그저 편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혼자 보다는 외로움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라도 하니까 더 낫고, 위로도 받게 되고, 와이프는 똑똑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해박하거나 그러지도 않아도 어쨌든 말없이 믿어 줄려고 하고, (참여자 10)

6) 남한 사회에 맞추려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타협함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었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가며 나름의 전략도 세워 나갔다. 지속적으로 '남한 사회에 맞추어 살아가려 노력하였고'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협해 나갔다.

우리 사람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에서도 자꾸 여기저기 찔러봐라.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게 있을 거다. 나도 여러 가지 자영업도 해보고 여기 지원해가지고 별거 다해보고, 노가대도 해보고 그거는 딱 집어 놓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형사님도 북한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딱 집어 놓은 건 없습니다. (참여자 1)

제가 느낀 점은 자본주의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저희하고 틀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상대하고 <중략> 남한 사람들 상대해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상대하면 안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 자기가 경험하면서 상대하는 거죠. (참여자 2)

북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남한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같아져야 돼요. 적응을 빨리 하자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냥 맞춰야 되요. 백번 잘해도 '예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별 탈이 없습니다. 괜히 대꾸하면 일만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사게 됩니다. (참여자 8)

7)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자각함

참여자들은 남한 생활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무조건 수긍하거나 남한 사람에게 맞추려는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좌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유지하며 견디어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 없는 맹목적인 모방은 오히려 실패를 야기하므로 남한사람들과 얼마나 동일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북한 출신으로 '깡 같은 기질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남한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찾기'를 희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긴 대로 나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남한사람들이 회사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럼 점점 자신을 잃어 가면 나중엔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면 좌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무한정 맞춰갈려면 끝이 없어요. (참여자 3)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통하지만, 어떤 벽이 있냐면 내가 남한에 와서 남한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벽 있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북한 물먹고 북한 밥 먹고 살았으면 몇 십년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변해지나요 안변해지지. 억지로 맞추려 하면 더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북한사람 특유의 깡이 있습니다. 왜냐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전 생각했죠. 그 깡으로 살아보자. (참여자 6)

8) 남한에서의 앞날의 가능성을 타진해 나감

참여자들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후,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가족이 있어서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며 자식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으므로 '남한 사회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희망' 하였다. 또한 남한에서는 '일하고 받는 보상으로 앞날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기쁨'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고생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의 가치를 후대에 넘겨주고자 하는 각오가 있었다. 또한 미래에 '북한이탈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살고 싶은' 가능성을 소망하였다.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431

자식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세상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좋은 세상에 와서 보다 더 좋을 라면 자기들이 공부를 잘 해줘야 되는데... 별 반 다르지 않죠. 여기 사람들이나 제가 생각해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참여자 1)

우리는 백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우리 몸에는 북한에서 온 게 남아 있잖아요. 우리 자식 때에는 대한민국 혁명의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우리하고 성분이 다르거든요. 근본성질 자체가 대한민국 씨거든요. 우리 둘은 열심히 벌어서 우리 다음 대에는 부자가 되게끔 발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합니다. (참여자 8)

열흘 동안 내가 80만원을 벌었다면, 여기서 몇 프로는 내가 생활에 쓰고 몇 프로는 저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쓴다. 이런 자기 희망 계획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나도 자꾸 열심히 일을 나가죠. 처랑 아이들을 데려오는 목표로 열심히. (참여자 4)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최종 목적도 그거에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힘들게 다 그러니까. 내 회사를 꾸려서 내가 한번 다 책임져서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2만 명을 다 책임지진 못해도 북한이탈주민의 1/10이라도 책임져서 이 사람들 다 같이 잘살아 보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참여자 6)

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북한이탈주민이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는 목적이 생존을 위한 것이든 회피를 위한 것이든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이든 그 떠남의 성격이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참여자는 고향을 떠나 온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탈북 하여 남한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과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남한으로의 이주를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견디어내야 했다. 참여자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남한 땅에 발을 내딛는 입국의 순간에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낯빛을 느끼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였다. 청춘연가(Kim, 2012)의 주인공이 방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환하고 밝은 불빛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과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북한의 풍경과 대비되는 남한의 밝은 불빛과 정경은 기대감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감격에 벅차오르는 공간적 체험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으로서 망설임 없이 선택한 남한에서의 생활을 통해 당황스러울 만큼 이질적인 언어인 외래어와 맞닥뜨려야 했다. 또한 남과 북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로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직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잘 먹지 못하는 술을 새벽까지 먹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한 사회의 음주문화로 참여자는 몸이 힘들었고,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이 두려워 먹기 싫은 음식도 내색할 수가 없었다. 참여자는 자신을 기꺼이 받아준 남한사회에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겪으며 남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참여자에게 일 한만큼의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전장(戰場)같은 자본주의의 생존 경쟁은 참여자에게는 진입하기 버거운 장벽이었고 자신이 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모멸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버거움은 참여자에게 반복되는 일상의 좌절을 느끼게 하였고 지치고 피곤해하며 무기력해지는 또 다른 자아를 향한 신체적 체험이었다. 참여자는 남한 사회의 풍요로움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주지만 너무 돈, 돈, 돈만을 지향하는 남한의 사회가 마치 '말은 의미를 잃고 계산하는 일만 중요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낯선 느낌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마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간극을 Schulze (2009)는 그의 소설 '새로운 인생'에서 통일 이후 동독사람들이 겪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언어가 숫자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살다가 숫자가 언어를 덮어버리는 세상에 와 있다고 표현한 의미와 유사하였다.

참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숨통이 트이는 위로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삶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과 동질성을 느끼고 사심 없이 도와주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며 서서히 남한사회와 친숙해지고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가족은 참여자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며, 생계를 책임지며 삶의 의미를 찾고, 소속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었다. 참여자는 나름대로 삶의 적응방법을 모색하면서 남한사람들에게 가졌던 자신의 선입견이나 오해를 깨닫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시도하였다. 남한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모방하면서 자신의 이방인 체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로는 남한사회에 맞추고자 하는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든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참여자는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경험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남한 사람에게 무조건 수긍하고 맞추려는 행동이 오히려 좌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적 체험을 통한 자각은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삶이란 북한 출신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 특유의 부지런함, 의지력, 깡과 같은 강인함을 재인식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각은 참여자가 '우리식대로, 내 방식대로, 북한식으로, 주체적으로'라는 자신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견디어 내고 극복해 내려는 강한 노력을 통해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기회가 되면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남한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목표를 가족과의 관계적 체험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자신과 다른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순수한 남한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참여자는 노동을 통한 대가로 가족을 위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통해 앞날의 가능성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이와 같이 참여자는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경험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낯선 경험이었다. 또한 참여자는 낯선 경험 속에서 남한사회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원래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남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겪는 참여자의 좌절감은 남한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에 대한 거절로부터 발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반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참여자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상봉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남한으로의 이주에 대한 의미를 찾고, 가족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자녀의 성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投影)하게 되면서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경험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풂'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발적인 이주(migrants)라는 점에서 이주민의 성격을 띠지만 반면에 북한을 떠난 후 본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난민(refugee)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Kim Y. W., 2007).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자 선택한 곳이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정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즉 무국적자로서 제 3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이송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신세계로의 진입(Kim H. K., 2007; Lee & Kim, 2007)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경험은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해야한다는 기대와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인생의 전환기적 사건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겨워 하였다. 자신만을 위해 탈북을 했다는 미안한 감정과 이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맏이로서, 형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탈북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Chang & Kim, 2000)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죄책감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송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전적 도움을 통해 북한의 부모형제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고자 하였다(Yoo,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죄책감'은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표현한 것은 죄의식에 대한 보상의 기전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응이 안됨'은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남한 사회에 대한 이질성과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Jeong (2002)의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문제는 남북한 간에 언어차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긍정적 측면과 동일한 언어체계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의사소통 문제로 생소한 단어와 외래어와 한자,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발음 등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심리적 위축과 차단을 경험하였다(Kim & Hur, 2010; Kim H. K., 2007). 특히 남성이탈주민은 여성이탈주민에 비해 언어적인 적응 능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Jeong은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본질적 주제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본 연구 참여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젠더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주제는 '생활양식이 달라 남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함'이었다. 이주민들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할 때 자신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자신의 행동양식을 변형하고 수정한다(Knipscheer & Kleber, 2007).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문화의 이질성을 경험하면서도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주변화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Kim H. K., 2007). 또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사고방식으로부터 오는 이질성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경제, 사회, 문화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431

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고, 남성정체감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이러한 경제적 능력의 부재는 남성이탈주민이 여성 이탈주민보다 우울감과 좌절감을 더 높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Cho, Jeun, Yu, & Um, 2005).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남성 북한이탈주민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겪는 경제적 곤란과 죄책감이 남성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다섯 번째 주제인 '의지가 되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예컨대,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기력은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며 특히, Yoo (2009)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적 연결망의 취약을 그 연유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의 방어기제로써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을 시도하지만(Kim H. K., 2007)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또한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대처 능력을 배우며, 가족의 신뢰를 통해서 남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는 '남한 사회에 맞추려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타협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었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가며 나름의 적응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지속적으로 남한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였고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협해 나갔다. 그러나 Gjerde (2004)는 특정 문화 출신을 거의 동일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남한 사회에 무조건 동화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를 가져오며 오히려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자각함'이라는 주제로 연계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적응의 한 유형이라고 제시한 연구 결과(Chung & Yang, 2004)를 뒷받침한다. Chae (2011)가 제시한 동화형과 통합형 모두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맞추려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타협'해 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강점을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자의 경우 '동화'보다는 '통합'적인 측면 즉 양문화적인 전략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Dona & Berry, 1994; Pumariega, Rothe, & Pumariega, 2005)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만을 부각시킨 무조건적 동화정책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특성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예술 '이중주'(KBS Drama Special, 2011)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보수논객과 탈북자 며느리의 화합은 극으로 치닫던 갈등의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을 통합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의 앞날의 가능성을 타진해 나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에서의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 앞날의 가능성은 곧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으로 받은 보상은 가족을 위해 쓰여 지고, 후대를 위해 계획되어지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과 대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Research Coordination Center, 2011)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등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에 대한 보상을 확신하며 앞날의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떠나왔다는 기본적인 죄책감은 존재하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자신의 탈북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남성주민들이 가족을 구심점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Lim (2011)의 연구에서 낯선 생활세계에서 힘이 없는 이방인으로 존재하던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출산으로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고 가족 내에서 주체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맥락과 소말리아 피난민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헝가리로 피난을 하였지만 가족의 접촉이나 분리와 같은 가족요인이 긍정적인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Kroo & Nagy, 2011)는 맥락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은 타국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인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 극복력(resilience)으로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Patterson, 2002)임을 의미한다. 가족의 결핍과 병리보다 강점과 자원에 근거한 모델을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Hawley & DeHaan, 1996).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경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신이 버리고 온 고향과 남겨진 가족

들로부터 느끼는 죄책감으로 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낯선 환경에서 고립감, 무력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으로 자신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수정하며 남한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지만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는 전환의 기회를 가졌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의미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 예컨대 북한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참여자들의 남한에서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매니저인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이 비정규직에 편중되어 조사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남한 조직 사회로의 편입의 경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로의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그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이탈 남성주민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지체계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남성이탈주민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남성이탈주민은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였을 때 안정감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건강문제로 남한 사람들과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북한이탈 남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기 적응에서 음식과 음주문화와 관련한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북한이탈 남성주민은 초기에 남한 사회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루어나감으로써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유형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강인함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나 임상실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접할 때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 여성주민들과 달리 남성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아울러 간호학적 돌봄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는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 남성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경험의 의미는 북한을 탈출할 때의 자아와 남한 사회에서 남한 사람처럼 되기 위한 자아, 궁극적으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아 등 세 번의 전환을 통해 남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초기에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상대 문화에 동화하려고 시도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 문화를 통합하려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으로부터 소속감과 미래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가족기능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극복력 증대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 분석과 탐색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Bae, H. D., Sung, J. H., Kim, Y. H., Yi, H. K., & Lee, J. H. (2005). A study on the application capability of the North Korean escapees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s in Daegu area. *Journal of North East Asian Studies, 36*, 207-244.

Chae, N. R. (2011).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0*, 165-185.

Chang, H. K., & Kim, Y. R. (2000). *A study on family stability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men's rol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ho, Y. A., Jeun, W. T., Yu, J. J., & Um, J. S.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 year follow 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7-484.

Chung, J. K., & Cho, J. A. (2008). Issues in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hos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487-518.

Chung, J. K., & Yang, K. M. (2004). Recent developments in acculturation theor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3*(1), 101-136.

Dona, G.,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attitude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entral Americ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9*(1), 57-70. http://dx.doi.org/10.1080/00207599408246532

Gjerde, P. F. (2004). Culture, power, and experience: Toward a person centered cultural psychology. *Human Development, 47*(3), 138-157. http://dx.doi.org/10.1159/000077987

Ha, Y. S. (2009).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1), 125-141.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 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3), 283-298.

Jeong, C. H. (2011). Intercultural education in Germany and the problem of the other.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6*(1), 75-102.

Jeong, K. I. (2002). The survey of the linguistic adaptation of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0*(1), 253-274.

KBS Drama Special. (2011). *A duet*. Retrieved November 13, 2011, from http://www.kbs.co.kr/drama/thedrama/vod/replay/1756527_38193.html

Kim, C. K. (2007). A study on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Koreanisch Deutsche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25*(2), 15-39.

Kim, E. K., & Hur, S. J. (2010). Toward reciprocity of acculturation: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in South Korea. *Minjok Yeonku, 41*, 97-119.

Kim, H. A., Lee, S. Y., & Kim, K.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 being: Based on Korean im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1), 333-354.

Kim, H. K. (20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rauma recovery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Y. J. (2011). Supportive strategies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Focusing on resilience. *The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1), 99-129.

Kim, Y. K. (2012). *Youth sonata*. Paju: Woongjin ThinkBig.

Kim, Y. W. (2007). *A life history research of North Korean youth refugee for the support of socia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Knipscheer, J. W., & Kleber, R. J. (2007).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ghanaian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3*(4), 369-383. http://dx.doi.org/10.1177/0020764007078344

Kroo, A., & Nagy, H. (2011). Posttraumatic growth among traumatized somali refugees in Hungary.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5), 440-458. http://dx.doi.org/10.1080/15325024.2011.575705

Lee, C. W. (2013). *Study on North Korean middle aged male defectors' social capital 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Lee, M. J., Choi, Y. J., & Choi, S. B. (2010). Multi cultural society and social distance for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Survey Research, 11*(1), 63-85.

Lee, O. J., & Kim, H. K. (2007).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212-1222.

Lim, H. S. (2011).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3), 243-255.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43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Inc.

Ministry of Unification. (2013).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Retrieved February 18, 2013, from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Research Coordination Center. (2011, January). *Fundamental analysis report: A study researched the lifestyl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o. Issue Brief No. 2011). Seoul: Author.

Park, S. H., & Seong, S. H. (2008).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present condition, task and performance analysis in Korea.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72*, 19-60.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2.00349.x

Pumariega, A. J., Rothe, E., & Pumariega, J. B. (2005). Mental health of immigrants and refuge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1*(5), 581-597. http://dx.doi.org/10.1007/s10597-005-6363-1

Schulze, I. (2009). *Neue leben* (S. J. Noh,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NY: SUNY Press.

Yoo, H. S. (2009). A study on a strategy of empowerment for overcom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feeling of powerlessness. *Trends and Prospects, 77*, 352-388.